

# 순천시 열린 광주전남타운홀 미팅 “통합 원칙, 제대로 지켜질까” 우려

### 전남동부, 청사 배분·광주시로 흡수 등 우려감 여전

전남·광주 행정 통합과 특별시 탄생과 공생 방안을 고민하는 전남 동부권 타운홀 미팅이 순천대학교에서 열렸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3일 오후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전남·광주 행정 통합에 대한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궁금증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전남 동부권 타운홀 미팅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동부권 5개 시군 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특별시 탄생 후 우려가 됐던 청사 배분 문제와 지역 소외, 광주시로 흡수, 인구소멸 위기 대응, 청년 예산 배분, 문화 예술 부흥 정책 등이 우려와 지적으로 제기됐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은 각각 국회 행안위의 특별법 통과 소식과 숨 가쁘게 달려온 전남·광주 통합의 순간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 노고, 이를 지켜본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통합 논의 과정서 제기됐던, 광주시로의 흡수 및 동부 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의 활용안, 재정인센티브의 연속성, 통합 후 후유증 봉합 등이 재론됐다.

청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강기정 시장은 “특별시장이 되면 동부 청사로 첫 출

근 하겠다”면서 “한곳만을 주청사로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한 학생은 “3려 통합을 이룬 여수는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 후 동부권 소외가 우려되는데 해결 방안은 없다”고 질문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질문이다. 경제를 보면 동부권인데, 행정을 보면 무안청사가 있는 서부권이라는 생각 때문에 소외감이 있을 수 있다”며 “특별시가 탄생하면 더 커지는 만큼 상생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동부 청사를 격상한 광역행정청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을 보면서 그 후에 누가 책임질 일인지 궁금하다”며 “4~5년 후 책임에 대해 법률로 제도적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석유화학 장기 불황으로 여수산단의 대전환 필요한 시기다”며 “지방산단인 울촌산단 조성이 10년째 지지 부진한데 지방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건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울촌 2, 3산단의 개발이 더디다”면서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처럼 인구 소멸 지역이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일정 비율로 예산을 배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통합 후 지역에 무



13일 오후 전남순천시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전남동부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이 열리고 있다. /뉴스1

엇이 들어오게 될 것인지 관심이 많다. 구례가 추진하는 양수발전소가 추가로 건설해 거기서 나오는 기본 소득을 주민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통합시 오케스트라 창단 및 문화재단 공유

활성화와 전라선 KTX 고속화, 고속도로 건설, 고령 인구를 위한 예산 배분,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청년 창업 및 청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전남권 의대 증원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펼쳤다.

한 질문자는 “김 지사와 강 시장이 자기

지역에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통합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고 따졌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렵게 이룬 통합 결실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에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지역 성장의 결정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광수 기자

## 여수·순천·광양시, ‘동부권 상생균형발전’ 힘 모은다

전남 순천시장과 여수시장, 광양시장이 전남·광주 통합 후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은 13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제41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정기 회의를 열고, 전남 동부권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 건의 3건을 공식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3개 시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와 전남·광주 행정 통합 논의에 발맞춰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지인 여수·순천·광양 지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 전남 동부권 도시들,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 상생·균형 공동건의 “행정통합으로 오래된 구조적 불균형 반드시 끌어내도록 협력”

시장들은 우선 ‘전남 동부권 상생 균형 발전과 산업 대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3개 시는 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해 RE100 기반 미래 첨단산업 복합 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차전지·반도체·우주항공 등 신산업을 육성해 지방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선도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

성과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도 핵심 과제로 건의해 전남 동부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 3개 청사의 기능별 본부제 운영의 특별법 반영에 대해 논의했다.

3개 청사를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부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동부 청사를 미래신산업, 에너지, 해양수산, 관광 기능을 전담하는 본부로 지정해 통합 이후에도 각 권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한다고 순천시 관

계자는 설명했다.

시장들은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좌석 확대 공급’에 대해서도 공동 건의했다. 연이은 국제 행사 개최와 통합에 따라 급증할 산업·관광·생활 이동에 뒷받침하기 위해 상시 수요 초과가 발생하는 전라선 좌석 확대 공급을 필수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공동 건의는 여수·광양과 함께 동부권의 위상과 역할을 행정 통합 과정에서 분명히 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동부권은 전남의 경제적 심장부 역할을 해 왔음에도 상대적으로 산업·행정 등에서 소외를 겪어 왔는데, 행정 통합으로 오래된 구조적 불균형을 반드시 끌어낼 수 있도록 3개 시가 협력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인화 광양시장의 ‘반도체 산단 유치’ SNS 공방이 화제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은 13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제41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순천시제공

가 된 뒤 3개 시 시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다. 노 시장은 정 시장을 만나 최근 SNS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에게는 MBC순천이전 대해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병남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